

맞벌이 가정의 주부와 남편을 통해 본 가사공간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Housework Space Viewed from Housewives and Husbands in Dual-Earner Families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장 상 옥**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ang, Sang-Ock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ousework space viewed from housewives and husband in dual-earner families. For this study, depth-interview method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The depth-interview were conducted on the eight housewives and two husbands in dual-earner families in Jinju and Gwangju in April 2005. The narratives were then analyzed to discover the demands of the kitchen and laundry room.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Dual-earner families want the kitchen design is they can share housework with their spouses, such as kitchen facing the front side of the floor plan and island counter. In addition, they want spacious, adjustable(flexible), visible storage to enable the housewives to work with their spouse efficiently. Space for Kimchi refrigerato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kitchen. 2) They want the noise-free laundry because the interviewers did their laundry work in the night time. Also, they want a multi-purpose laundry room where machine washing, hand washing, drying and ironing can be done. In addition, for hand-washing wives and husbands, specific space and facilities where they can hand washing on stand posture were needed.

▲주요어(Key Words) : 맞벌이 가정(dual-earner families), 가사공간요구(the demands of the housework space), 부엌(kitchen), 세탁공간(laundry room)

1. 서 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초등학생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보육과 가사노동이 가장 큰 스트레스(대한주택공사, 1999)로 보육 이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가사로 지적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주된 가사담당자는 주부(93.5%)로, 이들의 가사노동 수행은 주당 약 30시간 정도이므로(한국여성개발원, 2002; 채로, 이기영, 2004), 맞벌이 주부는 직장일과 가사 병행으로 과도한 가사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

며 결국 이러한 노동부담은 일과 가정을 원만하게 양립시키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맞벌이 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남편을 포함한 가족원의 가사분담 필요성이 논의되었고(김성희, 1995; 채옥희, 2002),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들의 가사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가사공간이 필요하다고(최정신·한주희, 2004) 지적되었다. 즉, 가사노동이 주부전담에서 가족원분담으로 이행될 때 주부담자의 가사는 경감되어 전체 가족원의 삶의 질은 더 향상될 수 있으므로 가사공간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편 등 가족원의 가사수행이 수월하도록 가사공간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취업주부에게만 지워진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 저 자 : 장상옥 (E-mail : sojang@gsnu.ac.kr)

면 맞벌이 주부의 사회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주부와 남편이 평등하게 직업생활에 참여하는 현 시점에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시키기 위하여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가족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공간은 가족원의 공동가사 수행을 유도하므로 가사절감과 아울러 가족단란을 조성하게 되므로 맞벌이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래 서서히 변화되는 남편들의 가사노동 시각도 가사공간 변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¹⁾ 앞으로의 가정생활은 가사와 생활이 일체화되어 부엌/식사실 중심으로 부엌공간이 확대될 것(이연숙, 양지안, 1999)이라는 전망 역시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공간 연구에서는 대부분 여성이 주 공간사용자임을 전제로 주부를 대상(윤영삼·강병근, 1998; 임미숙·김석경·권영태·심방섭, 1999; 윤재웅·한지영, 2001; 김수경·정유선·윤정숙, 2002)으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공간 요구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나, 가사를 공유할 수 있는 남편 쪽의 요구 파악에는 미흡한 편이었다. 또 연구방법 면에서도 대체로 양적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어 당사자 내면의 심층적인 파악이나 요구를 밝히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가사공간 연구를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양적연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사와 자녀양육의 이중 부담을 겪게 되는 단계인 만이가 초등학교이하인 맞벌이 주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사공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요구에 대하여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²⁾

II. 맞벌이 가정의 가사공간

맞벌이 가정의 가사공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양적인 방법을 채택한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이러한 연구에서 밝혀진 맞벌이 가정의 특성과 공간요구를 살펴본다.

맞벌이 부부는 대체로 야간의 재택특성이 있으며, 공간의 주된 사용자는 부부 중 주택 내 체류시간이 길고 다양한 주생활

- 1) 현대백화점 유통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30-40대 남성 직장인(323명)의 88%가 집안일을 돕고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는 30%, 동등 가사 분담이 18%, 주말 또는 시간이 날 때 거든다는 40%, 거의 돕지 않는다는 12%이며(연합뉴스, 2005.5.1),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전국 60개 초등학교 학생(19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빠가 가사활동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지 않다가 80.6%(동아일보, 2005.4.20)로 나타나는 등 남성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보인다.
- 2) 조용환(2005)은 질문지 조사의 한계 보완에 질적 연구의 유용성을 언급하였는데, 문숙재, 조성은(1995) 역시 가사노동의 양적연구에서는 질문지에 사용된 개념차이로 연구결과와 오류를 낳을 수 있으므로 질적연구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위를 수행하는 맞벌이 부인이다. 그러나 현실과 달리 가사공간인 '부엌/식당에 대한 의식은 '가족전체가 주부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주거는 수납공간의 극대화과 가사효율화를 위한 내부공간구성·설비를 특화시킨 아파트와 탁아시설을 설치한 육아지원 아파트가 가장 필요하며 외부공간과 편의시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정의 주거계획 방향은 수납공간 극대화, 가사효율성을 높이는 내부공간, 가사노동의 경감을 도모하고 가족간의 단란을 증진하며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에 대응하고 주택과 가장 접촉시간이 긴 휴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팀, 1999).

김수경, 정유선, 윤정숙(2002)은 한·일 양국의 기혼취업여성의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실태 및 요구, 주거요구에 대한 연구에서 가사공간의 기능이 한국 주부는 가사공간에서 세탁행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고, 일본주부들은 부엌과 세탁공간 분리를 원하였다. 부엌의 유형은 한국 주부들은 DK 형태를 선호하나 일본 주부는 부엌을 식사실, 거실과 함께 계획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거는 맞벌이 가족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고 가사일 분담을 유도하는 평면 및 설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가사서비스 지원행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최윤정, 김민정(2003)은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연구에서 부엌 및 식사실은 L-DK 형태, 거실 대면형 작업대, 키 큰 수납장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 부엌 및 식사실은 벽면을 모두 수납장으로 하고 거실대면형 작업대와 카운터를 이용하여 거실과 분리하고, 식사공간과는 연결되는 형태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세탁공간은 부엌과 연결된 다용도실을 다소 넓게 하여 세탁기를 두고 하나의 공간에서 세탁과 건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맞벌이 가정의 가사공간에 대한 양적 연구에서 주부의 요구는 대체로 가사공간의 기능, 부엌형태 및 작업대, 수납공간 등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가사공간에 세탁행위를 통합시키거나 분리하는 방안, DK형 부엌, 거실대면형 작업대, 수납공간의 극대화 등의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맞벌이 가정의 주부로 그들의 요구만 파악되어 상대적으로 가사 분담 가능성이 있는 남편의 요구나 불편점에 대해 미흡한 편이며, 또한 맞벌이 부부가 가사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측면의 파악은 부족한 편이었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주부와 남편이 가사공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하였다. 주거 및 관련행위의 '의미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자 문화와 주거와의 관계 연구에 가장 효과적인 소수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질적

연구(이희봉 역, 1998)는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현상의 구조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양적연구와 달리 현상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조용환, 2005).

심층 면접은 계량적 방법의 설문조사식이 아니라 연속되는 개방형질문을 사용하여(박종흡 역, 2003) 변수를 선불리 한정하지 않고 눈에 띄는 모든 변수를 포착하려고 하므로 조사대상의 일부 특성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수량화하는데서 오는 오류를 보완해 줄 수 있다(조용환, 2005).

면접대상은 모집단의 표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연구대상에 대해 연구자는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개별적인 소수 사례에 접근하였는데 자발적으로 면접의사를 표명하고 녹취를 허용한 진주와 광주의 맞벌이 주부와 남편으로 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은 연구자 거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취업한 기혼 여성의 가족과 관련된 정보가 자료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하면 모집단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준거적 표집방법 가운데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가사와 자녀양육의 부담이 매우 높은 미취학 및 초등학교육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정의 주부 8사례와 그 남편 중 2사례를 선정하였다. 남편의 선정은 먼저 맞벌이 주부를 심층면접한 후 가사분담 비율이 높다고 판단된 2명을 다시 선정하였다. 특히 가사분담율이 높은 남편의 선정은 충분한 가사수행으로 가사공간에서의 불편점이나 요구에 대해 민감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6명 남편의 응답은 직접 면담의사가 없어 연구자가 주부에게 남편 측 질문내용을 설명한 후 주부가 남편에게 질문하여 간접적으로 응답받도록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05년 4월과 5월 중에 이루어졌는데 진주지역에서 6명, 광주지역에서 4명의 총 10명을 심층 면접하였다.³⁾ 심층면접은 먼저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을 얻어 시간 약속을 한 후, 주로 낮 시간 동안 제보자의 직장에서 이루어졌는데, 퇴근 이후 제보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가사공간에 관한 관찰이 가능하였다. 면접내용은 녹음기로 녹취하였으며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나 자료의 녹취과정에서 재확인할 일이 있는 경우 전화면담 및 이메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가사공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제보자 가정의 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질문은 연구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 제보자의 응답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배제하고, 맞벌이 주부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는데 어려운 문제에서 출발하여 자녀양육기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육아문제와 가사노동문

제로 이어진 후 자연스럽게 가사공간 문제로 집중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면접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전사(全寫)한 녹취록과 면접과정에서 기록한 제보자의 정보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제보자의 일반적 특성

제보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진주지역의 사례는 A부터 D까지이며, 광주지역은 E부터 H까지이다. 주부의 연령은 30대 후반이 6명, 40대가 2명의 총 8명이며, 남편은 A씨와 B씨의 남편으로 각각 36세, 40세의 2명이다. 자녀는 각각 한 명, 세 명인 제보자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자녀는 두 자녀 모두 초등학교육인 D씨와 F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가정이므로 가사와 육아부담이 상당히 큰 단계로 볼 수 있다. 결혼 지속기간은 7년부터 15년까지인데 10년 이하와 10년 이상이 각각 4명씩이다. 주부제보자의 직업은 사무직, 공무원, 교사, 법원 기능직, 학원 운영, YMCA 근무, 야쿠르트배달 등 다양한 편이다. 맞벌이 주부의 취업상태는 대체로 결혼 전부터 계속해 온 직업을 결혼 이후까지 지속하고 있는데, C의 경우 둘째 아이 출산하고 나서 3년간 휴직 후 복직하였고, F는 맏이가 5세 무렵에 취업을 하였다. 남편의 직업은 교사, 학원 운영, 회사원, 공무원, 판사, 건축 하도급자 등으로 부인의 직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편인데 이 중 제보자는 교사와 학원운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은 350만원 이하 2 가정과 400만원~800만원이 6 가정으로 2005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3,291,216원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택은 학원과 병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B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면적은 30평 미만과 30평 이상~48평까지가 각각 4 가정씩 이다. 방의 수는 2~4개이다.

2. 부엌/식당 공간

맞벌이 부부의 부엌/식당공간과 관련된 가사생활에 대해 면담한 결과 부부의 가사분담과 가사공간의 불편점 및 요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맞벌이주부는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과도한 부담 및 시간부족으로 퇴근 후 가사노동시간이 가족의 단란과 중첩되어 부엌/식당 공간에서 이루어 지기를, 또 남편의 가사참여가 가능한 공간이 됨으로써 맞벌이 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이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가사를 분담하는 맞벌이 남편의 경우에는 여성 중심으로 계획된 가사공간에서 작업할 때의 공간 및 설비와 신체의 불일치 등 문제점을 토로하였다. 그러면 맞벌이주부와 남편 제보자의 시각에서 가사공간에 대한 불편점과 요구를 기초로 이들이 원하는 가사공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표 2>.

3) 심층면접 사례는 연구자의 거주지인 진주에서의 6사례와 광주에 거주하는 김선미 교수님의 면접자료(4사례)를 이용하였다. 면접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면접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의 거처 대상을 면접하였으며, 면접 후 제보자의 정보를 정리·작성하여 논의하였고, 다시 논의된 내용을 다음 면접에 반영하는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1> 제보자 가정의 특성

제보자	거주지	주부 직업 (연령)	남편 직업 (연령)	자녀 (연령)	결혼지속년수 (취업기간)	월소득	주택(평수)
A	진주	중학교교사 (36)	중학교교사 (40)	딸(8) 아들(7)	9년 (결혼 이전~현재)	600만원	아파트(40평)
B		학원운영 (36)	학원운영 (36)	아들(9) 아들(4)	10년 (결혼 이전~현재)	400만원	병용주택(37평) 1층 학원 2층 주택
C		중학교교사 (37)	판사 (36)	딸(8) 딸(6)	7년(3년 휴직) (결혼 이전~현재)	800만원	아파트(25평)
D		농촌생활지도사 (39)	회사원 (42)	딸(12) 아들(11)	11년 (결혼 이전~현재)	500만원	아파트(28평)
E	광주	YMCA상근실무자 (35)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무(38)	아들(8)	8년(9년)	300만원	아파트(29평)
F		아쿠르트배달 (40)	토목·건축 하도급자(43)	딸(12) 아들(10)	11년(7년)	350만원	아파트(32평)
G		법원 기능직 (40)	법원일반직 (43)	아들(14) 딸(11) 딸(7)	15년 (결혼 후~현재)	500만원	아파트(48평)
H		대학교 사무직원 (36)	시청공무원 (40)	아들(8) 아들(6)	9년(18년)	450만원	아파트(29평)

<표 2> 제보자 가정의 부엌/식당 공간의 불편점과 요구

사례	불편 점	요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 혼자 고립된 작업대(벽면에 붙은 작업대) · 개수대 좁아서 두 사람 참여 불편 · 불박이장 많으나 융통성 없음 · 김치냉장고 둘 공간 부족하여 동선이 길어짐 (현재 둘 곳 없어 냉장고 반대편에 두므로 꺼낼 때 동선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보고 이야기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작업대와 부엌 · 개수대 넓게 · 융통성 있는 불박이장(필요시 기기 넣을 수 있게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 · 김치냉장고 공간 확보, 일반냉장고 옆쪽으로 나란히
A씨 남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크대 낮아 허리 아팠음(현재는 적응) · 수납된 부분 찾기 어려움 · 수납공간 부족 · 설거지 시 고무장갑 사용 안하여 주부습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개소에 수납공간 확보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향이므로 오후에는 어두워 조명을 사용해야 하는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밝은색으로 실내장식함(커튼, 가구, 벽지) · 기기 등 배치 장소 부족: 드럼세탁기를 구입하려하나 배치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 구입 망설임 · 식기세척기 구입하였으나 남편은 시간, 물, 전기료가 비경제적이라 하여 갈등. 잘 안 쓰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 남서향 부엌, 채광, 통풍조건 유리하게 · 조리대 공간 크게, 하부수납장에 양념공간 · 아일랜드형 작업대 · 드럼세탁기를 넣을 공간 확보
B씨 남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크대 높이 낮음: 허리가 많이 아픴, 이전 아파트에서는 싱크대 높이 낮고 상부수납장에 머리가 부딪치는 불편 · 향 불만족, 정서향이라 여름에 직사일광, 저녁에는 어두움 · 식기세척기가 작업대 위에 있어서 좁음 · 고무장갑이 작아 사용 불편 · 기기 두는 공간 문제: 김치냉장고자리 없음 · 식기세척기의 사용시간 긴 점: 본인은 5-10분에 손으로 설거지, 바쁘고 피곤할 때는 식기세척기 사용(주로 부인이 사용) · 초기는 그릇, 용품 등이 어디 있는지 몰라 몰아서 사용 · 전체적으로 부엌에 대한 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내에 부엌을 다시 리모델링 할 계획 · 높이 조절되는 싱크대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면적 · 수납공간 부족 · 작업공간 협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있는 공간 · 적절한 수납장 ·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엌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혼자만의 부엌 느낌 *남편:설거지 후 마무리, 쓰레기 처리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과 같이 가사를 할 수 있는 작업대(벽면 작업대 아닌)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이 거실과 분리되지 않은 점. TV보면서도 주부가 무엇을 하는지 보이기 때문 (외관상 일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싫는데 손님 방문 시 불편) *남편: 식기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사용 시 불편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고 둘 공간이 적절치 않음 · 상부수납장이 높아(키가 작으므로) 의자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 작은 사람도 상부 수납장 사용이 용이하게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아파트에서 신체 큰 남편이 일 할 때 협소하게 보임 · 냉장고와 식탁 자리가 일 할 때 불편 *남편: 부엌 물품 둔 장소를 잘 모름: 주부는 남편이 써야 할 것을 눈에 보이게 내 놓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탁과 냉장고의 적절한 공간배치 가능하게 · 요리하면서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부엌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이 좁아 음식 만드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여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면 포함하여 다소 더 넓은 부엌, 남편도 같은 의견

1) 맞벌이 주부가 보는 부엌/식당 공간

(1) 부엌/식당 공간에서 느끼는 소외감; 너 일, 내 일이 아닌, 여자 혼자만의 부엌이 아닌 곳으로

맞벌이 주부는 직업과 가정의 일을 양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당한 시간 제약 속에서 주생활을 영위한다. 퇴근 후 이어지는 가사처리에서 맞벌이 주부는 시간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가사공간의 물리적 환경 조건은 사용자에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벌이 주부의 이야기를 통해 본 결과 그들은 부엌의 위치 및 작업대 배치 방향으로 인해 가족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주거공간의 뒤편에 위치한 부엌/식당은 맞벌이 주부가 가사노동을 하는 동안 거실에 있는 가족구성원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가족원의 가사분담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이 경우의 부차적인 단점은 낮이라도 어두워서 작업 시에는 인공조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병용주택에 거주하는 B씨는 “지금 부엌은 완전 서향 이에요. 그래서 해가 넘어 갈 때쯤이면 어두워요.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놔요.” 하는 식으로



<그림 1> 서향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밝은 색으로 처리한 부엌/식당(B씨 맥)

향(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따라서 리모델링 시에 싱크대나 커튼 등 부엌 내 설비와 용품을 흰색이나 밝은 색으로 처리하여 가능한 서향부엌의 약점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고 한다<그림 1>.

부엌작업대의 벽면 부착형은 맞벌이 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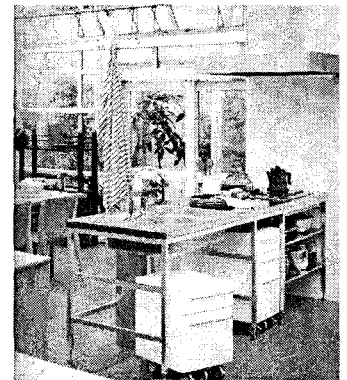
가 저녁 준비 등 가사를 할 때 벽을 보고 일하게 되므로 가족과 교류하지 못하고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퇴근 후 짧은 시간이라도 부엌/식당에서 맞벌이 주부가 가족과 마주하고 이야기 하면서 작업할 수 있고, 아이도 참여할 수 있는 작업대 형태인 거실 대면형이나 아일랜드 형이 이들의 제한된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너 일 내 일이 아닌, 여자 혼자만이 아닌’(D) 부엌으로 남편을 포함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하기를 원한다. 이를테면 B씨의 경우는 “싱크대가 부엌 중앙 쪽 와 있고, (중략) 그러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부엌 같은 곳은 애기들도 같이 요리를 하고 싶어 해요. 높은 의자 가져와서 하기도 하는데”(C) “외국인들 보면 요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부럽죠. 요리할 때”(G). 이들 맞벌이 주부들이 원하는 공통된 부엌 상은 퇴근 후 주부가 고립되지 않고 남편을 포함한 가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있다.

“부엌은 반대로 서서 일하게 되어 있는데, 저 혼자 일하고 있으면 그렇고, 반대로 가족보고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A)

한편, 거실에 개방되거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부엌과 달리 거실과 분리된 부엌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경우는 손님 등 방문 시 일하는 공간이 정리 정돈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관상 좋지 않거나 또 일하는 것이 보이는 점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는 부엌의 지저분한 부분이나 냄새, 조리영역 등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이연숙·양지안, 1999) 이유에서 비롯되며 한국주부는 DK형태를 선호한다(김수경·정유선·윤정숙, 2002)는 점과 같다.

“저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부엌이 따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다 붙어 있었어요. 그게 불편해요. TV 보면서도 내가 무엇 하는 거 다 보이고, 손님들 오고 이랬을 때 외관상 안 보였으면.”(E)

그러면 우리네 부엌이 맞벌이 주부의 ‘가족과 함께’라는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살펴보자. 최윤경(2003)은 부엌의 위상이 1970년부터 1995년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여 주택의 중심이 되었고, 주부의 작업이 가족생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했다.4) 그러나 맞벌이 주부의 면담을 통해 본 이 연구에서는 부엌에서의 소외감이라는 심리적 거리가 존재하여 가족생활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이므로, 퇴근 후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가사를 수행하고 가족원과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부와 가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엌의 위치 및 작업대 배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거실에 대면하거나 벽 부착이 가능한 융통성 있는 작



<그림 2> 거실대면 또는 벽 부착 가능 작업대의 예: Frame kitchen (일본 ToTo사 제품)

4) 최윤경(2003)은 평면을 통한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간 구문론(Space-Syntax)을 이용하여 1970년~1995년 사이에 건설된 중산층 규모 아파트의 평면(27개)을 분석한 결과 부엌이 점점 높은 위상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는 여성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먹고 마시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변화했다고 본다. 최재필·조형규·박인수·박영섭(2004)도 3LDK형 아파트의 부엌은 주부의 위상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가사분담 등의 가족구성원간의 역할 변화로 지속적으로 공간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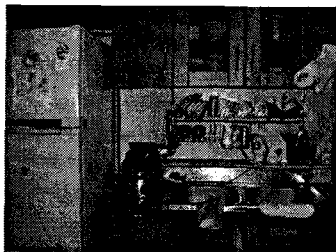
업대의 선택<그림 2> 등을 아파트 분양 시 옵션사항에 넣어 맞벌이 가정의 개별 특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2) 가족원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부엌/식당 면적; 남자들이 도와줄 때 좁아서 불편해요.

부엌/식당에서 가족원의 가사참여를 용이하게 위해서는 주가 사노동자 이외의 작업자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맞벌이 주부는 부엌의 면적과 관련하여 남편을 포함한 가족이 같이 일할 때 비교적 협소하다고 경험하는데, 부엌이나 조리대의 크기는 아파트의 평수에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는 실정 이므로(김지은·이희봉, 1993) 이러한 면적이 가족원의 가사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부엌/식당에서 남편의 가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면적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⁵⁾ 특히 앞에서 지적된 가족원이 같이 참여하는 부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남자들이 도와줄 때, 옛날에 저희가 좀 적은 데서 살 때는 진짜 불편해요. 왜냐면 (남편이) 덩치는 큰데 좁은 곳에 가 가지고 이렇게 비켜가야 하잖아요. 본인은 불편하다고 안하는데 제가 보기에 불편스러워요.”(G)

또 이러한 면적 부족은 가사절감기기를 위한 공간, 작업대 면적, 개수대 면적의 부족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A, B, C, D, G).<그림 3>⁶⁾ 부엌의 전반적인 면적부족으로 가전기기는 적절한 위치를 찾고 있지 못하다. 근래 보편화되고 있는 김치냉장고를 둘 위치가 부적절하여 작업 동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형태면에서 수직공간을 활용하지 못하여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한다<그림 4, 5>. 이는 근래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김치냉장고의 면적 및 위치가 부엌 평면에서 고려되지 않아 작업대간 배치가 부적절하여 부엌면적이 좁아지고, 작업 동선이 길어지거나, 혼란스러운 점이 있음을 반영하므로 이를 위한 장소가 배려



<그림 3> 협소한 작업대의 예 (D씨 맥)

5) 아파트 면적이 86-135㎡ 인 경우 부엌/식당의 면적은 18㎡가 최빈치로 나타났다(이숙영·이연숙, 2005).

6) B 씨는 퇴근 후 시간부족으로 조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막상 작업을 하려면 면적이 부족하여 이리 저리 그릇이 밀쳐지고 포개어져서 매우 불편하다고 말한다. A 씨 또한 남편과 같이 작업하기에는 개수대 부근이 작다는 이야기를 한다.

되어야겠다. 김치냉장고의 보편화와 더불어 일반냉장고의 대형화 추세까지⁷⁾ 감안한다면 이들 기기의 크기와 동작면적을 고려한 부엌 공간 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 동선흐름이 부자연스러운 김치냉장고 위치 (B씨 맥)



<그림 5> 냉장고 반대편에 위치한 김치냉장고(D씨 맥)

맞벌이 주부가 원하는 김치냉장고의 위치는 현재 비교적 큰 평형에 거주하는 A 씨의 경우 냉장고 옆에, 좁은 부엌의 경우에는(D 씨) 발코니에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공간의 확보는 거실이나 침실의 면적을 줄이기보다는 일부 발코니공간을 부엌에 편입시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⁸⁾ 공평한 가사분담을 담당하는 맞벌이 남편의 경우(B씨 남편)에는 이러한 불편을 인식하면서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으나 앞으로 새로이 집을 짓는다면(3~4년 내에 집 지을 계획이 있음) 이러한 공간을 부엌에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한편, 이러한 기기를 위한 면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공간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자의 정확한 요구 파악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아파트 분양 시 맞벌이 가정의 조건에 맞춘 옵션을 개발하여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김치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요즈음은 다 있으니까. 냉장고는 들어가는 공간이 딱 있는데, 김치 냉장고는 홀로 식탁하고 있으니까 딱 공간을 들어가게 하여, 밖으로 안 튀어 나오게 일직선으로. 그렇게 되면 산만한 느낌이 안 들지요. 김치 냉장고 위치는 냉장고

7) 최근의 보급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김치냉장고로(경기매일, 2003. 9.4일자), 보급률은 2000년 16.1%(통계청, 2002), 2004년 57%(전자신문, 2004. 8.9), 2005년 85%이상(가전업체통계치, 디지털타임즈, 2005.9.23)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기기이다. 용량면에서는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2004년 3분기)의 65%가 대용량 제품(180~200ℓ)을 구매하였다(전자신문, 2004. 11.8). 아울러 양문형 냉장고는 일부계층의 사치품에서 생활필수품으로 인식이 변하여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도 대용량이 선호되는데, 인기 있는 용량은 660~680ℓ 이다(소비자시대, 2003.4).

8) D씨는 김치냉장고는 위로 열게 되어 수직공간 활용이 낮고, 사용빈도가 일반 냉장고보다 적어 부엌보다는 가까운 발코니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다.

옆이 좋겠지요. 어쩔 수 없이 반대편에 있으니까 꺼내려고 열었다가 ‘아니지, 이 쪽 편에 있지’ 하고 냉장고를 열게 되어 보면 없고, 동선이 길게 되지요. 옆에 있으면 문이 나란히 있어 좋겠지요. 현재 냉장고 옆이 벽이라서 못 넣지요.”(A)

또한 부엌 작업대하부에 들어가게 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에도 사용하고 싶지만 공간부족으로 구입에 제약을 느낀다. 즉, 맞벌이 주부는 효율적인 가사를 위해 기기를 필요로 하나 부엌이 좁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필요 시 이러한 기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수납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개별 가정의 조건에 따라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이 요구된다.⁹⁾

“세탁기(드럼)를 바꾸고 싶은데 넣을 데가 없어요. 부엌에다 두어야 하는데 수납장 한쪽을 빼고 넣어야 하는데, 둘 데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아니면 안방 화장실에 넣을까. 세탁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인터넷을 다 뒤지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넣을 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넣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발코니에 넣을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불편해서 제가 피하고 싶은데.”(B)

한편 식기세척기의 경우는 시간, 에너지, 비용 면에서 비경제적이라는 판단 하에 사용이나 구입이 억제되는 편이다.¹⁰⁾ 가사에 적극적인 맞벌이남편은 설거지거리가 생기는 즉시 처리해 버리므로 작동시간이 긴 식기세척기가 굳이 필요 없다는 반응이나¹¹⁾ 바쁜 경우에는 맞벌이 주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진영·강순주(2005)는 식기세척기를 소유한 가정의 기기 사용빈도는 17.6%로 비교적 낮는데 이는 전기료나 전용세제의 사용 등 불편과 긴 세척시간의 이유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식기세척기의 보유율은 2000년 5%로 김치냉장고나 드럼세탁기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며 4년 전인 1996년의 3.9%에(통계청, 2002) 비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아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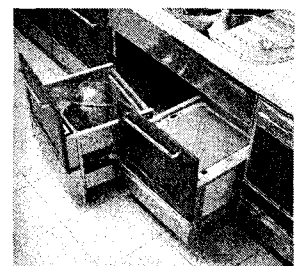
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급율을 감안하여 수요가 높은 기기를 중심으로 공간이 배려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사용자 중심적인 기기 및 부엌용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거지 하는 것 너무 싫어해서 식기세척기를 얼마 전에 구입해서 넣었는데, 저는 식기 세척기가 소독도 되고 위생적이니까 쓰자고 하는데, 남편 쪽은 안 써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 많이 들고, 전기세 많이 들고, “너 가정주부 맞나?” 하고 싸우고 무용지물이죠. 저는 좋다 해서 샀는데 안 쓰니까...”(B)

수납공간의 문제에서는 수납공간의 부족과 기존에 주어지는 수납공간이 고정되어 필요 시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융통성 문제 및 이외에 작업대 위의 상부 수납장은 키가 작은 사람에게서는 높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A, B, C, F).¹²⁾ 이들 맞벌이주부는 전반적으로 능률적이고 융통적인 수납공간을 원하는 경향이였다. 즉, 수납공간이나 수납장이 충분히 제공되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때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형태, 작업자의 신장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이 용이한 수납장 등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상부수납장의 경우 키가 작은 사람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조절 가능한 형 등이 고려될 수 있겠다<그림 6, 7>. 이러한 수납장 설치에 대해 조사 대상 맞벌이 주부는 이러한 형태는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므로 분양 시 추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사용상 이득이 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선택하겠다는 의견이였다.



<그림 6>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상부수납장의 예 (일본 Cleanup사 제품)



<그림 7> 하부수납장의 예 (일본 Cleanup사 제품)

- 9) 현재 부엌에서 세탁을 하는 가정은 22.3%이나 앞으로 하고 싶다는 가정은 35.3%로 나타나(박희진·김묘정, 2003) 부엌/식당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요구가 있다. 2004년 현재 드럼세탁기는 세탁기 시장의 약 58%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된(한겨레신문, 2004. 11.16일자) 상황이므로 이러한 기기를 위한 공간이 부엌에 융통성 있게 배려될 필요가 있다.
- 10) D 씨는 식기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 주변 사용자의 경험담을 듣고 사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즉, 물 소비가 많고, 사용 빈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구매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 11) A 씨 남편의 경우는 자신이 주로 집안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등 가사에 매우 적극적인이므로 설거지가 나오는 대로 즉시 해버린다고 한다.

- 12) 평수가 작은 경우에는 수납공간의 부족을, A 씨와 같이 평수가 넓어 불박이장이 많은 경우에는 필요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적인 수납공간을 원한다. F 씨는 상부수납장은 높고 키는 작아 위쪽에 수납된 물품을 꺼내기 위해 의자 등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을 지적한다.

2) 맞벌이 남편이 보는 부엌/식당 공간

(1) 남성의 신체와 설비, 용품의 불일치; 싱크대가 낮아서 허리가 아프고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신체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여성의 신장을 기준으로 한 작업대 높이에서 가사작업을 할 때 신체와 설비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특히 맞벌이 남편들이 많이 하는 설거지의 경우 싱크대 높이가 낮아 불편하다고 응답한다.

“싱크대가 신체조건이 있으니까 조금 낮다는 것. 그것에 습관이 들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허리가 많이 아프고…”(B씨 남편)

이에 대해 B씨의 남편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를 설치함으로써 신체 조건이 차이 나는 주부와 남편이 같이 편하게 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불편은 키가 큰 여성의 경우에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맞벌이 가정의 소득수준이 다소 높고 남편의 가사참여가 높은 가정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설치하겠다는 응답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면서 오히려 작업대는 고정시키고 단이 낮은 높낮이 조절 의자를 사용하는 편이 신장에 상관없이 가족원이 모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경제성 있는 높이 조절되는 작업대인 경우 수용 의사가 있다는 연구 결과(이연숙·양지안, 1999)를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 및 가족원의 가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작업대 높이조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싱크대가 좀 올라가든가 내려가는 구조면 좋겠지요. 조절되면… 남자하고 여자 할 때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여자가 더 큰 경우도 있는데…”(B 씨 남편)

아울러 작업대 위의 상부수납장 높이는 남성들의 신장으로 인해 작업 시 방해 요인이 된다. 여성들의 신장을 고려하여 작업대 높이와 이에 맞추어 상부수납장이 설치되므로 신장 차이가 나는 남성이 작업할 때는 상부수납장에 머리가 부딪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외에 기타 용품 문제로 설거지 시 사용하게 되는 고무장갑의 크기가 맞벌이 남편의 손에 맞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다. 대체로 남성의 손은 여성에 비하여 크므로 여성 사이즈로 제작된 고무장갑을 끼고 벗을 때 불편하여 고무장갑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또 이로 인해 주부습진이 발생했다는 응답이 있다. B씨 남편의 경우 고무장갑을 끼고 벗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서 아예 사용하지 않아 주부습진이 생겼거나, 처음에는 고무장갑을 사용하지 않다가 주부습진으로 인해 꼭 사용한다는 A씨 남편의 경우와 같이 용품의 규격으로 인한 불편점도 보인다.

“설거지 할 때는 고무장갑을 안 끼는데. 귀찮아서 잘 안 벗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손 자체가 크니까 끼워 넣기가 힘들고 벗기도 힘들어요. 손하고 고무관하고 밀착이 되어서 영 사용하기가… 그런데. 그런 것을 잘하면 남자도 사용하기 쉬울 텐데.”(B 씨 남편).

B씨 남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신체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엌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랜 기간의 반복으로 일종의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해 보면 실제로 일이 힘들지는 않는데, 신체 조건상 좀 까다로운 일이다 보니까. 남자한테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일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좀 섬세함을 요해야 한다고 할까. 남자가 하기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오래 살다 보니까 적응을 한 것이지요.”

이로 보아 가사를 분담하는 맞벌이 남편은 여성의 신장을 기준으로 계획된 부엌/식당에서 일을 할 경우 그들의 신체의 차이로 인하여 설비와 용품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근래 맞벌이 남편이 가사에 점차 참여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들의 신체특성을 배려한 설비나 용품 문제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2) 수납문제; 일 할 때 물건 찾기가 어렵고

“처음에는 그릇이 어디 들어 있는지 잘 모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거지 할 때는 제가 놓는 데가 따로 있고, 우리 집사람이 할 때는 정리한다고 다른 곳에 놓아 버리고… 그릇을 찾는 것이 한 두 번씩 있어요.”(A씨 남편)

제보자 가정의 부엌/식당에서 물품의 수납을 책임지는 사람은 맞벌이 주부이므로 주부 중심의 물품 수납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맞벌이 남편들은 자신이 물품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납 위치를 잘 알지 못하여 일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이리 저리 찾게 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된다. 식사준비 경험이 없었던 맞벌이 남편은 물품의 수납 위치를 몰라 주부에게 물어가면서 사용하거나, 남편이 써야 할 물품을 주부가 눈에 띄는 곳에 미리 내어 놓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남편의 가사분담이 매우 높은 가정은 물품의 두는 위치를 미리 약속하여 맞벌이 부부가 각자 가사를 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충분한 수납이 안 되는 수납공간의 부족 문제도 지적되는데 A씨의 남편 경우 가사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납공간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

수납된 물품의 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사를 기피할 수 있다. 따라서 주 사용자가 아니라더라도 누구나 물품을 쉽게 찾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시성 있는 수납공간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3. 세탁공간

맞벌이 부부의 세탁공간과 관련된 면담을 분석한 결과, 어린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정의 세탁관련 가사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하게 되므로 비교적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작동시킬 때의 소음문제로 인한 세탁작업의 어려움과 세탁관련 행위를 하게 되는 공간의 분산으로 인한 작업의 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는 부엌

/식당 공간에서 겪었던 것처럼 신체와 공간, 설비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3>.

1) 맞벌이 주부가 보는 세탁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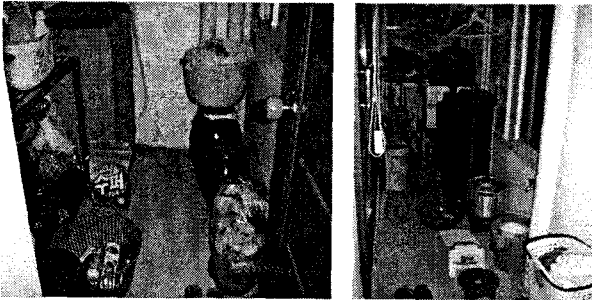
- (1) 분산된 세탁공간; 세탁기빨래는 뒷발코니에서, 손빨래는 목욕탕에서, 건조는 앞발코니에서
현재 맞벌이 주부들이 빨래를 하는 빈도는 거의 매일 또는

<표 3> 세탁 공간 실태, 불편점 및 요구

사례	세탁 및 의류관련 가사공간 실태	불편점	요구
A	· 다용도실: 세탁기 및 수납장 · 앞발코니: 수도시설, 건조시설, 수납 · 손빨래(출근 전), 건조 · 뒷발코니: 가스레인지-삶기 · 다리미방-세봉, 다리질 및 작업	· 세탁기 소음으로 밤 시간 사용 못함 · 앞발코니에 손빨래하고 뒤편에 있는 다용도실의 세탁기에서 탈수하는 동선문제 · 다리미 방 수납시설부족	· 시간이 단축되는 드럼세탁기 · 세탁기두는 곳과 손빨래하는 곳, 건조시설을 한 공간에 · 수납공간 충족
A씨 남편	· 빨래 2~3일에 1회	· 빨래 건조 공간 부족:아이 빨래가 많이 나오므로 · 세탁기 소음으로 9시 이후 하지 않음 · 바닥에 앉아서 다리질하여 다린 곳에 구김 발생	· 부엌공간에 건조겸용 세탁기 또는 앞발코니에 세탁기, 건조대
B	· 앞발코니:세탁기 빨래, 빨래수집통 · 욕상: 건조 · 욕실: 손빨래 · 다리질: 방에서(바닥)	· 세탁공간 부족:세탁기 둘 위치 부적당, 세탁물 꺼내기 불편 · 다리질 잘 못해서 싫음 · 손빨래는 하기 불편. · 삶는 공간 불편 · 목욕탕에서 손빨래 후 세수대야에 담아서 세탁기로 가져가므로 불편 · 겨울철 세탁기 둔 공간 추움	· 드럼세탁기로 교체희망 · 세탁기와 손빨래공간의 결합 (수도시설)
B씨 남편	· 발코니에 세탁물 수집통 · 빨래는 거의 매일	· 세탁기가 바깥에 있는 점 · 빨래 건조에 오르락 내리락 불편,일광건조 좋아서 불편함 상쇄 · 세탁기 빨래시 빨랫감 종류구분 어려움 · 손빨래 쭈그리는 자세 불편:남성의 허벅지 두께로 쭈그리는 자세는 매우 어려움. 그래서 쭈그린 자세에서 하는 일은 싫어함(자녀가 이럴 때는 손빨래 함) · 기존 대용량 위투입식 세탁기는 키 작은 여성들이 빨래 꺼내기 불편하다고 인지	· 드럼세탁기는 부엌작업대 밑에:발코니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부엌에서 수월하게. 일이 줄어들 것임, 빨래 꺼내기도 수월할 것으로 봄 · 손빨래는 싱크대 같이 서서 할 수 있는 것
C	· 앞발코니:세탁기, 건조대 · 욕실:손빨래 · 거실:다리질	· 발코니와 목욕탕이 좁아서 손빨래를 편하게 할 공간 없음 (보통 목욕탕에서 쭈그리고 앉아 하게 됨) · 앞발코니의 세탁기 사용 시 소음으로 자녀 취침 방해 · 위집의 물 내려 가는 소리, 남의 집 세탁기 소리 심함	· 발코니, 목욕탕 확대 · 바닥에 쭈그리고 하지 않는 손빨래 공간(앞발코니에) · 큰빨래(이불빨래) 발로 밟아서 세탁할 수 있는 공간
D	· 앞발코니1:손빨래, 삶기, 건조시설 · 앞발코니2:단차를 두어 러닝머신 둠 · 다용도실:세탁기,수납,쓰레기분리수거 · 욕실:손빨래 · 다리질:거실	· 손빨래 불편:목욕탕은 손빨래 용품을 두어 미관상 좋지 않고, 발코니는 더운 물이 안 나와 불편 · 빨래 삶는 장소 부적당 · 다리질은 거실에서 하는데 다리질 용품의 적절한 수납 장소 부족	· 세탁기, 손빨래, 삶기가 모두 되는 공간 · 입식세탁공간(냉온수설비 및 세탁관련용품 수납설비) · 입식다리미대를 일정 공간에 두고 다리질 수 있도록
E	· 다용도실:세탁기(주중 오후11시세탁, 주말 오전 9시) · 앞발코니:세탁물건조,이불말리기 · 뒷발코니:손세탁	· 세탁기 소음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 빨래하지 못함 (이전 독립주택 2층 거주에서) · 삶는 빨래 경우 가스레인지와 떨어져 있어 이동시 물 떨어짐 *남편: 발코니는 좁아서 세탁물 건조 시 불편	· 세탁기, 손빨래, 삶기(전용 레인지) 등을 같은 공간
F		· 소음으로 저녁에 빨래 잘 못하는 점	· 저녁에 일해도 소음이 안 나도록 조치 필요
G	· 빨래는 일주일에 두 번		
H	· 다용도실, 앞발코니 없음 · 뒷발코니:세탁기 (주중 오후9-10시, 주말 오전10시) · 욕실:손빨래	*남편: 손빨래 시 앉아서 구부리고 하는 점	*남편:서서 손빨래할 수 있는 공간:허리, 다리 안 아프게

일주일에 2~3회 정도이다. 세탁행위는 세탁기 세탁, 손빨래, 삶기, 건조, 개기, 다림질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세탁 행위는 공간의 구성형태에 따라 가사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공간별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보면 대체로 다용도실에서는 세탁기 빨래, 수납,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앞발코니에서는 세탁물 건조, 세탁기 빨래, 손빨래, 뒷발코니에서는 삶기, 손세탁, 세탁기 빨래, 욕실에서는 손빨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러한 세탁행위와 공간, 기기를 대응시키면 세탁기는 다용도실이나 앞·뒤발코니에 설치되고, 손빨래설비는 앞발코니 또는 욕실에, 건조설비는 대체로 앞발코니에, 빨래삶기 설비는 부엌 또는 앞발코니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맞벌이 주부의 세탁관련 행위는 다용도실, 앞·뒤발코니, 욕실, 부엌 등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상당한 불편을 느꼈다.¹³⁾ <그림 8> 따라서 맞벌이 가정에서 일련의 세탁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간의 연결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8> 다용도실에 둔 세탁기(D씨택)

앞발코니의 건조와 손빨래 공간

“저는 세탁기가 손빨래 하는 공간과 같이 있으면, 세탁기는 바깥에 발코니 쪽에 있고 손빨래하는 곳은 목욕탕에 있고, 목욕탕에서 빨래를 해서 세탁기 쪽으로 가져가야 되면 세수대야에 담아서 물이 줄줄 흘러서 가야 되고.”(B)

손빨래는 맞벌이 자녀 양육기 가정에서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활동이 왕성한 자녀의 양말 등의 세탁은 세탁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삶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손빨래를 하는 공간에 대해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겪는 불편과(A, C, D),¹⁴⁾ 손빨래 시의 자세에 대한 지적이 있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불편하게 빨래를 하기보다는

서서 손빨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편할 것으로 본다.

“빨래를 마음 놓고 넓은 공간에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보통 목욕탕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쭈그리고 앉아야 되니까 저는 쭈그리고 앉아 있는 공간은 안 좋은 것 같아요.”(C)

이들 제보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세탁공간의 형태는 세탁기 세탁, 손빨래, 삶기, 건조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가사노동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뒷 발코니에 입식형 손빨래 설비와 빨래 삶는 공간이 설치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분양가에 반영되어 주택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구입할 의사가 충분함을 피력하였다.¹⁵⁾ 또한 이러한 공간에는 손빨래가 편한 자세로 될 수 있도록 설비 및 냉·온수 설비가 구비될 때 효율적인 작업이 되어 가사절감이 될 것이다.

(2) 세탁공간의 소음 문제: 밤에 빨래하기 어려워요.

“옛날 세탁기 쓰니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빨래가 좀 쌓이게 되고, 잠시 잠시 시간을 잘 맞추어서 돌려야 되니까.”(A)

맞벌이 주부는 퇴근 시간 이후에 주로 가사를 하게 되므로 늦은 시간에 세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경우 세탁기 소음이나 물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맞벌이 주부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소음문제로 인해 야간에 세탁작업이 어렵다는 것은 맞벌이 가정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¹⁶⁾ 특히 세탁기 공간이 앞 발코니에 위치한 경우는 위층에서의 배수 소리가 거실에서 시끄럽게 느껴지는 등 소음 문제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시간 사용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늦은 밤에 세탁기를 사용해도 소음이 문제되지 않는 세탁공간이나 가능한 소음이 적은 세탁기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림질은 거실, 방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한 적당한 장소가 없는 점과 다림질 용구의 적절한 수납장소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다림질 자세 면에서는 입식의 설비를 구비하면 남편의 참여가 쉬울 것으로 본다. 비교적 규모가 큰 평형에 거주하는 A 씨는 다림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납공간 부족 등을 제기하면서 평형이 큰 주택은 침실의 개수보다

13) 발코니에서 이루어지는 세탁관련 행위 중 건조기능의 불만이 가장 높는데 겨울에는 보온이 되지 않아 빨래가 얼거나 건조행위 시 추운 점이 있고, 세탁공간에서 건조공간으로의 이동이 불편한 점이 주부에게 노동으로 인식된다(최세미·이지순·윤정숙, 2001).

14) D 씨는 손빨래를 발코니에서 해보았으나 이 곳의 수도설비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은 점, 세탁기를 두는 다용도실은 좁고 쓰레기분리수거 통을 두어서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5) D씨는 세탁작업의 동선을 고려한 통합된 세탁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16) F 씨는 아래층 거주 할머니가 매우 예민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빨래를 못하게 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저녁 시간부터 가사노동이 시작되므로 이러한 시간대가 제약을 받게 되면 가정일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

는 면적에 중점을 두고 평면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다림질은 거실에서 해요. 다림질대가 있어야 하는데 집이 좀 넓어야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입식으로 해서 항상 아저씨가 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방에서 하다가, 거실에서 하다가 다림질대를 보관할 위치가 없어요. 자주 꺼내야 하는데. 농 안에 넣어 두기도 그렇고. 구석에 치워놓기도 하고, 넓은 편이면 어느 한 쪽에 빨래를 걸어가지고 개면서 연결되어서 바로 다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지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조심해라. 뜨겁다” 하면서 하는데, 다림질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방에 두기도 그렇고 다리미를 높은걸 바꾸어서 남편보고 ‘다려 달라’하고 시키려고 하는데. 다리미대도 어느 한 곳에 정해 놓고 하는 곳이 필요한데.” (D)

종합하면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을 절감시킬 수 있는 세탁 공간은 이들의 세탁행태(사용자, 세탁빈도 및 시간), 세탁행위별 공간의 연결 관계, 기기, 소음, 수납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맞벌이 남편이 보는 세탁 공간

맞벌이 남편의 면접을 통하여 본 세탁관련 공간에서의 불편 점은 남성의 신체와 공간, 설비가 맞지 않아서, 공간이 좁아서, 늦은 시간 세탁 시의 소음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1) 남성의 신체와 공간, 설비의 불일치

“남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딴지가 참 굵어서 꿰어앉기가……. 너무 고 통스러워요. 근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쭈그려 앉는 일은 참 싫어하거든요. 다리도 아프고, 남자들의 특성일 겁니다. 여자들은 신체조건이 장딴지가 매끈하니까. 남자들은 운동하다 보니까 겹쳐 앉으면 허벅지하고 장딴지가 밀착되어서 굉장히 아파요.”(B씨 남편)

손빨래 경험이 있는 맞벌이 남편의 경우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자세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불편점에 대해 B씨, H씨 남편은 손빨래 공간의 설비가 ‘세면대처럼 되어 있으면 다소 더 편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식 손빨래 공간이 구비될 경우 여성과 다른 신체조건을 가진 남성들의 세탁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이의 선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한편, 세탁기를 두는 공간의 면적이 협소하여 세탁기를 두는 위치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다. 근래에는 용량이 큰 세탁기를 선

호하므로 세탁기를 두는 위치와 면적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공간과 기기의 불일치가 생겨날 수 있는데 B씨의 남편은 이러한 점을 지적한다. 또 길고 좁은 발코니에서의 빨래 건조는 체격이 큰 남성에게는 불편하고(E씨의 남편), 자녀가 여러 빨래가 많으면 건조 공간의 부족이 생기기 쉽다.¹⁷⁾<그림 9>

맞벌이 남편 또한 주부와 마찬가지로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세탁을 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해 가사가 자제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F씨 남편, A씨 남편).

“현재 세탁기는 소음이 많아서 아침에 돌리거나, 가서는(퇴근해서) 바로 돌리거나 해서 9시 이후로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A씨 남편) 이 경우는 중학교 교사로 퇴근시간이 오후 4시 반 이후가 되므로 시간에 구애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지만 소음에 대해 매우 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씨 가정의 경우는 주중에는 오후 11시에, H씨 가정의 경우 오후 9-10시에 세탁을 하므로 야간세탁 시의 소음 문제로 이웃간 갈등의 소지가 생겨날 수 있다.

이외에 맞벌이 남편이 겪는 세탁 문제는 빨랫감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점, 다림질이 잘 안되는 점을 지적한다. A씨 남편은 바닥에 앉아 다림질 할 때 한 면을 다리고 다른 면을 다릴 때 구김이 발생하여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경우 적절한 다림질 설비를 배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입식다리미대에서 다릴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다소 수월해질 것이다.



<그림9> 앞발코니의 고정식, 이동식 건조대(A씨택)

V. 결론 및 제언

주부와 남편이 동등하게 직업생활에 참여하는 현실에서 자녀 양육기 맞벌이 가정에서의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가사문제로 남편을 포함한 가족원이 같이 참여하는 가사공간은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사

17) A 씨 남편은 연년생인 두 자녀의 빨래가 많아서 앞 발코니의 천정에 고정된 빨래 건조대 외에 이동식을 2개 더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세탁물 건조로 앞 발코니가 매우 복잡하다고 한다.

부담이 높은 단계인 자녀양육기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주부와 남편이 가사공간에서 느끼는 불편점과 요구에 대해 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가정의 부엌/식당의 요구를 보면 주부의 경우는 부엌/식당공간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 가족원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고 가족원의 가사참여가 저해된다고 보고 있다. 즉, 주거공간의 후면에 위치한 부엌과 벽을 보고 작업하는 작업대 방향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끼므로, 시간압박을 느끼는 맞벌이 가정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가사를 수행하도록 가족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엌의 위치와 작업대 배치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협소한 부엌면적으로 가족원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점과 근래 보편화된 김치냉장고 등의 새로운 기기가 공간에서 고려되지 않아 활동 면적이 좁아지거나, 작업동선이 길어지고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이의 공간이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드럼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등의 설치에도 면적이 요구되므로 수요를 감안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기를 두는 공간의 확보는 부엌과 인접한 발코니를 부엌공간으로 편입시키거나 부엌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개별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선택적 확장이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간을 옵션사항으로 하는 방안이 요망된다. 또한 충분한 수납공간의 제공과 융통적인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에서는 추가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공간이 잘 갖추어진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므로 주택구입시의 선택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에는 부엌/식당 공간의 설비와 용품이 남성의 신체와 불일치하고 수납된 물품을 찾기 어려운 점이 가사참여를 저해한다고 보았다. 여성의 신체보다 상대적으로 큰 남성은 여성의 신장을 기준으로 한 작업대에서 가사작업을 할 때 신체와 설비간의 불일치를 경험하는데 특히 설거지 시 허리가 아픈 점 등의 지적이 있다. 아울러 작업대 위 상부수납장도 머리가 닿게 되어 불편하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을 주 작업자로 하여 계획된 기존의 작업대 높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남편을 포함한 가족원의 참여가 용이한 작업대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고무장갑의 크기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여성용으로 제작된 고무장갑이 남성에게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게 된 점 등의 문제가 보인다. 남성의 가사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신체특성을 배려한 설비나 용품 문제의 검토가 요망된다. 또한 주부 중심의 물품 수납으로 인해 남편이 수납위치를 잘 찾지 못하여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므로 가시성 있는 수납계획이 남성의 가사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에는 기기사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식기세척기의 사용 시간이 긴 점 등의 시간비용이 높아져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가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기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맞벌이 가정의 세탁공간 요구에서 주부는 세탁행위가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과 퇴근 후 밤 시간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세탁행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세탁행위에서 세탁기 빨래는 다용도실, 손빨래는 앞발코니나 뒷발코니, 건조는 앞발코니, 삶기는 부엌에서 이루어져 동선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편점에 대해 일정한 공간에서 일련의 세탁작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므로 이를 반영한 세탁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퇴근 시간 이후에 주로 가사를 하게 되는데 늦은 시간에 세탁을 하게 되면 소음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원하는 시간에 세탁이 가능하도록 소음이 문제되지 않는 세탁공간이나 소음이 적은 세탁기 등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맞벌이 가정의 남편은 세탁공간에서 신체와 공간, 설비의 불일치, 공간의 면적,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한다. 먼저 손빨래 경험에 있는 남편은 쭈그려 앉는 것이 여성보다 신체 특성 상 더 어렵다고 하므로 서서 일하는 공간이 제공될 때 남성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또한 어린자녀를 가진 경우 빨래의 양은 많고 건조공간은 부족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건조기나 공간절약적인 건조대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소음에서는 주부와 같은 이유로 늦은 시간에 세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편점을 지적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맞벌이 부부의 가사공간 요구를 종합한 부엌/식당공간과 세탁공간의 계획 시 고려 점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주거에서 부엌/식당공간은 가족원이 함께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 작업대 배치 방향, 대화화된 김치 냉장고 등의 기기를 위한 공간, 신장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높이 조절되는 작업대, 융통적이며 가시성 있는 수납공간 등을 옵션 사항으로 넣어 개별 가정의 가족특성, 경제적 조건 등 제 조건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남성의 가사분담영역의 확대를 고려할 때 가사관련용품은 주부용품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고무장갑 등 남성을 위한 관련 용품의 개발도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의 세탁공간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작업이 통합된 공간을 요구한다. 즉, 퇴근 후 야간 세탁 시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러한 점을 배려하여 세탁공간의 위치 및 소음방지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탁공간의 구성에서 현재는 세탁 작업이 여러 장소로 분산되어 동선이 길어지는 등 가사부담이 가중되므로 세탁기 빨래, 손빨래(냉·온수가 설비된 입식공간), 삶기, 건조, 개기, 다림질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맞벌이 가정의 개별 특성에 맞추어 조합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심층면접 특성 상 조사대상이 다소 한정된 점이 있어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자녀양육기 맞벌이 주부와 남편을 제보자로 한 심층면접

을 통하여 이들의 가사공간의 불편점과 요구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남편들의 가사공간에 대한 실태와 의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간계획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5년 07월 11일
- 심사일 : 2005년 07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2월 13일

【참 고 문 헌】

김대년·신혜경·이경희·최재순·홍형욱 편역(1995).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한울아카데미.

김미희·문화정(2001). 식당겸부엌 전면배치형 아파트의 공간이 용행태에 관한 조사연구-후면배치형과의 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8), 51-58.

김성희(1995). 과학기술이 가사노동수행양식에 미친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71-81.

김성희·장윤희·김은정·박상해·안수미 공역(1997).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도서출판 신정.

김수경·정유선·윤정숙(2002).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및 주거요구 비교. **한국주거학회지**, 13(1), 1-9.

김지은·이희봉(1993).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는 부엌공간 계획을 위한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3(1), 7-10.

김진영·강순주(2004). 아파트 주부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의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 53-60.

김진영·강순주(2005). 아파트 거주자의 가사작업공간 사용행태와 의식. **대한가정학회지**, 43(5), 17-30.

김진애·김해란·박인석·신혜경·임창복·조성룡·최재필(1994). **21세기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서울포럼.

디지털 타임즈(2005). '김디냉장고 용량 키우고...기능높이고...' 2005.9.23

박종흡 역(2003). James P.Spradley저. **문화기술적 면접법**. 시그마프레스.

박희진·김묘정(2003). 아파트 부엌공간의 부가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3), 101-108.

소비자시대(2003). **상품가이드 대형냉장고(양문형)**. 2003.4월호.

윤영삼·강병근(1998). 취업주부를 고려한 가사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8(2), 249-254.

윤재웅·한지영(2001). 아파트 가사공간 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4), 131-139.

이연숙·양지안(1999). 미래부엌 개발을 위한 소비자 요구 조사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술발표논문집**, 1(1), 53-56.

이연숙·이기영·김외숙·조희금·주인숙, Zick Cathleen, D., Lee, Yoon G.(2002).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9-155.

임미숙·김석경·권영태·심방섭(1999). 가사·생활일체 및 재택근무형 주택개발 연구. 대한주택공사 연구소.

전자신문(2004). 삼성전자-한국리서치 '가전소비행태' 조사. 2004. 8. 9.

전자신문(2004). 김치냉장고, 구매성향 '대용량' 뚜렷. 2004. 11. 8.

조용환(2005).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최세미·이지순·윤정숙(2001). 아파트 규모별 발코니공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3), 29-39.

채로·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채옥희(2002).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5-225.

최윤경(2003). 주택평면에 나타난 여성이 사회공간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1), 81-88.

최윤정·김민정(2003).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 평면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6), 23-32.

최재필·조형규·박인수·박영섭(2004).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분석 -1966년~2002년의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6), 155-164.

최정신·한주희(2004). 수도권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사작업 수행과 코하우징 요구의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2(12), 175-190.

통계청(2002).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결과.

한주희(2005).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겨레신문(2004). 국내 드림세탁기 '2과전→3과전'. 2004. 11. 16.

함한희(2005). **부엌의 문화사**. 살림지식총서157. 살림.

赤塚明子(2003). 家事を考へる. **家政科教育**, 77(10), 6-9.